

고등학생 근로경험과 성별에 따른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연구

Difference in Career Compete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High School Students' Work Experience Types and Gender

김소라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ora Kim(srkim@scnu.ac.kr)

요약

본 연구는 고교생들의 근로경험 유형--근로경험 없음, 긍정적 근로경험, 부정적 근로경험--에 따라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 간에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에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3,499명 고등학생들의 근로경험과 진로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원 다변량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실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정적 근로경험의 역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으며, 여학생에게 있어 근로경험 자체보다는 부정적 근로경험이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과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근로경험이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적인 영향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자기이해 역량과 확장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부정적 근로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 중심어 : | 진로준비행동 | 진로역량 | 고등학생 | 근로경험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career compete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ccordance with high school students' work experience types and 2)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work experience type and sex or work experience type and grades. Three work experience types were classified as no work experience, positive work experience, and negative work experience.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2009 Youth Career·Occupation Survey" conducted in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wo-way MANOVA was 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students had higher levels of career competency and career preparation than male students. Also,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negative effects of negative work experience compared to male students. The analysis confirme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work experience types and sex. Female students showed the higher negative effects of negative work experience than no work experience, whereas work experience, whether or not it is negative, was helpful for male students in career compete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keyword : | Work Experience | High School Students | Career Competen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본 연구는 2012년 순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10월 02일

수정일자 : 2013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01일

교신저자 : 김소라, e-mail : srkim@scnu.ac.kr

I. 서론

1. 문제제기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며, 더욱 전문화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본인의 진로결정에 있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근로경험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인 자아존중감, 경제의식,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에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진로에 대한 준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일을 통해 성취감을 달성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근로 경험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장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재학 시설 취업을 경험함으로써 직업 세계의 현실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는 졸업 후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직업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에 따라 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그들이 졸업하여 노동시장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소득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근로경험과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지키게 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이고 외재적인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근로 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직업을 준비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취업을 경험한 고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1].

또한 국외 연구들은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이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을 늘리고 고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기

여한다고 보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2][3]. 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진로역량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4]. 그 이유 중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진로와 무관하게 용돈을 위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가 근로경험 대부분이며, 그 종류도 극히 제한적인데 있을 수 있다. 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있어 49.7%가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대답했으며, 60% 이상이 일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이 이유인 경우는 7.2%에 불과했으며, 일의 선택에 있어서 적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학생들은 6.5%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근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근로경험이 진로역량과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수반되어야 할 과제이다.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결과가 청소년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근로에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5]. 심한 경우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구타,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헌법 제 32조 제5항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해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연소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성인과 동일하게 휴일·휴가 및 최저 임금이 적용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성별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보면,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6-8], 남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9], 진로발달 수준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10][11]가 모두 존재하여 진로역량에 있어 성차에 대한 일관된 방향을 추정하기 어렵다. 한 연구에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 efficacy)'을 제안하여 성취행동, 진로결정, 진로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의 역할, 성에 따르는 진로발달의 모델을 구축하였는데, 여기에서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근로의식에 대한 생각 즉 성실감, 책임감, 주인의식에 대해 가치관을 확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훨씬 높았다[12]. 만약 진로역량수준에 성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별과 같은 생물학적 변인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그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과의 조절효과 또는 매개효과를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진로역량은 계속 발달이 진행 중이므로 성별은 통제변수로서 고려할 수 있겠다.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의 차이를 문화의 시각에서 보는 경향도 있는데,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문화에 따라 진로에 있어 남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청소년들의 소비욕구에 초점으로 두고 진로와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근로경험의 유형을 분류하여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앞두고 진로결정의 중요한 단계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시간제 근로는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일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고교생들이 재학 중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역시 근로경험이 진로성숙에의 바람직한 영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13].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고교생들의 근로경험 형태에 따라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교생 근로가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생들의 근로경험 형태(근로경험 없음, 긍정적 근로경험, 부정적 근로경험)와 성별에 따라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근로경험 형태(근로경험 없음, 긍정적 근로경

험, 부정적 근로경험)와 성별 간에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교생들이 바람직한 근로경험을 통해 진로의식과 진로역량, 나아가서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교생들의 근로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및 근로경험을 진로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일반적으로 능력이 어떤 과업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practical) 기능적인(skillful) 자질을 주로 가리킨다면 역량은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향상할 수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4]. 진로발달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진로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과 일회성 진로결정이 아닌, 학생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15]. 즉, 기존의 진로역량은 직업 또는 학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의미하는데, 평생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자기 주도적이며 합리적으로 선택·준비·비교 및 평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된다[16].

특성요인 이론에서는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포함되고 있다[17].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세계에 관련된 객관적 정보와 체계적인 탐구 역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변화의 흐름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결정된 목표를 이

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18]. 김봉환은 진로준비행동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정보수집활동,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분류하였다[19]. 정보수집활동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인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을 파악하는 일과 관심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일은 준비과정에 필요한 장비나 교재를 구입하고, 직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획득하는 활동들을 뜻한다. 세 번째 실천적 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역량을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개인이 일생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자기 주도적이며 합리적으로 선택·준비·비교 및 평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술과 태도로 보고, 자기 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도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자기 이해는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며, 직업에 대한 지식은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로 정의된다.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로 볼 수 있다[4][20]. 이러한 진로역량의 하위 영역들은 궁극적으로 진로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범위와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비적 과정으로서의 정보수집활동과 자격준비활동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취업준비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2. 고등학생 근로경험의 효과

청소년 근로경험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논의된 경향이 있다[21-23].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

탈행위 및 성인문화를 일찍 접하게 되거나 학교적응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로의 종류와 성격, 일이 행해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25][26]. 단순히 청소년기의 근로가 소비욕구의 충족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소년기의 직업가치관, 독립심, 책임감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지키게 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업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생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이고 외재적인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획득한 경제의식과 근로의식,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부가적인 영향들이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진로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시간제 취업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된 경향이 있다[3].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을률과 소득증대에 있어 청소년기의 직업 경험은 인적 자본을 늘리고 고용 기회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이 노동시장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근로 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직업을 준비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제 취업을 경험한 고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 특히, 시간제 취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시간제 취업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제 취업 경험이 많은 학생은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교 재학 중 취업 경험이 직업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를 질문한 결과, 약

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취업 경험자는 자신의 고교 근로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 진로역량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근로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였는데, 그 이유 중에는 단순히 근로경험 유무 자체가 아닌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부당한 보수 지급 또는 안전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부정적 경험에 의한 역기능적 사고(예, 과잉일반화)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로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감을 맛본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자기 스스로의 효능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정해진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된다[27]. 반면, 근로로부터 좌절감을 느끼고 불만족스런 경험을 한 학생은 자신에 대한 신념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행착오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패경험으로부터 더욱 성장하고, 진로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경험 유무와 함께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청소년 근로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목적에 의해 중·고등학교 재학생 6,509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로부터 중학생을 제외한 3,499명 고등학생의 근로경험과 진로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중·고등학생들 중 층화 표집에 의해 추출된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교육, 준비, 체험 등 진로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중학생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모든 고교생 응답자 중 남학생은 1,955명(55.9%), 여학생은 1,544명(44.1%)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36명(35.3%), 2학년 1,217명(34.8%), 3학년 1,046명(29.9%)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을 보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2,253명(64.4%), 예체능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이 1,246명(35.6%)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고교생의 전반적인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에 의해 이원 다변량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면 종속변수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릴 확률이 커질 수 있다[28]. 따라서 다섯 개의 종속변수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변수선정 및 측정 항목

근로경험의 형태를 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근로경험 여부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 중 설문지에 제시된 20가지 일의 종류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근로경험학생으로 분류하였다. 열거된 일의 종류는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신문 및 우유배달에서부터, 카페/편의점/상점 점원, 아기/노인 돌보기, 공장/건설현장 노동, 사무업무 보조 등 사무/판매/서비스/육체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제시된 일의 종류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근로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한 가지를 표기하게 하였다. 복수응답이 허용되지 않아,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근로의 종류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로 볼 때,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가 전체 근로경험 학생 중 118명(20.6%)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집/분식집 등의 배달 경험으로 56명(9.8%)이 응답했다.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는 큰 차이 없이 소수 학생들이 최근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경험자 가운데서 9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경험 [표 1]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겪은 응답자를 부정적인 근로경험자로 분류하였다. 근로경험자 중 부정적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긍정적인 근로경험자로 분류하였다. 총 2,927명의 응답자는 근로경험이 없었으며, 근로경험이 있는 572명 중 272명의 고교생이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572명에게 아르바이트 중 부정적인 경험의 유무와 근로계약 절차상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총 9개의 경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 경우가 31.8%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항목은 107명(18.7%)의 응답자가 경험했다고 대답하여 부당한 보수지급 역시 주목

해야 할 문제였다. 그 외에도 초과 업무에 대한 임금지급이 없는 경우(16.3%), 폭언 등 인격모독(12.1%), 처음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한 경우(11.4%) 등 아르바이트 고교생들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과 인격적 대우의 문제에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근로경험 학생 중 272명(47.6%)이 최소한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21%에 지나지 않았으며,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응답자도 30.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들의 정당한 근로계약 절차의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 2]는 진로역량 측정항목 21개와 진로준비행동 설문항목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진로역량의 경우, 사전에 3개의 유형(자기 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로 나누어서 설문지를 작성했지만, 진로준비행동은 10개의 항목이 구분 없이 질문되었다. 따라서, 총 4개의 요인(자기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의 단일차원성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3.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요인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는데, [표 3]과 같이 다섯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을 선정하

표 1. 응답자의 근로 경험 관련 정보 (N=572)

| 영역 | 설문항목 | 있다(%) |
|------------|------------------------------------|-------------|
| 부정적인 경험 유무 | 1. 일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107(18.706) |
| | 2. 야근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 45(7.867) |
| |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였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 93(16.259) |
| |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 65(11.364) |
| | 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 182(31.818) |
| | 6.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 69(12.063) |
| | 7.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28(4.895) |
| | 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 27(4.720) |
| |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 26(4.545) |
| 근로 계약 절차 |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120(20.979) |
| | 2.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 | 176(30.769) |

표 2. 요인의 측정항목 및 기술통계량

| 요인 | | 설문항목 | 평균 (표준편차) |
|------------------|------------|---|------------------|
| 진 로 역 량 | 자기이해 |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SR1).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SR2).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SR3).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SR4). | 3.624 (0.875) |
| | 직업에 대한 지식 | 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KO1). 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KO2).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KO3). 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KO4). 5.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KO5). 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KO6). 7.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K7). | 3.188 (0.898) |
| | 합리적 의사 결정도 | 1.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RD1). 2. 진로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RD2). 3.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RD3). 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RD4). 5.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 볼 것이다(RD5).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 볼 것이다(RD6). 7.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RD7). 8.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디 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RD8). 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RD9). 10.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RD10). | 3.828 (0.759) |
| 진로준비행동 | |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LCP1).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LCP2). 3.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LCP3). 4.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LCP4). 5.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CR5). 6.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LCP). 7.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ECP1). 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ECP2). 9.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ECP3). 10.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ECP4). | 2.915 (0.766) |

였고, 요인적재치는 .5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Kaiser-Meyer-Olkin(KMO)값은 .94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값은 57679.010(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했다.

또한,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와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검토하였다. 내적 일치도를 점검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786~.918, 개념신뢰도는 .848~.931로 모두 임계치인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은 세 가지 영역(자기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을 측정하고 있다. [표 2]에서 제시한 진로준비행동은 10개의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져 단일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한된 진로준비행동과 확장된 진로

준비행동으로 명명하고 두 개의 종속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한된 진로준비행동은 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확장된 진로준비행동은 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근로경험과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먼저, 근로경험에 따른 세 집단 간에 사례 수의 차이를 보여 집단별 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했다.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검증한 Box의 M 검증 결과, 유의 확률이 0.05 이상으로 영가설을 기각하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 요인 | 항목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Cronbach's a | 개념 신뢰도 |
|-------------|------|-------------|-------------|-------------|-------------|-------------|--------------|--------|
| 자기이해 | SR1 | .194 | .358 | .143 | .734 | .093 | 0.847 | 0.897 |
| | SR2 | .275 | .260 | .007 | .745 | .110 | | |
| | SR3 | .326 | .290 | -.048 | .611 | .135 | | |
| | SR4 | .226 | .355 | .115 | .695 | .073 | | |
| 직업에 대한 지식 | KO1 | .193 | .706 | .168 | .313 | .182 | 0.904 | 0.924 |
| | KO2 | .185 | .751 | .153 | .201 | .063 | | |
| | KO3 | .198 | .765 | .197 | .141 | .019 | | |
| | KO4 | .222 | .741 | .194 | .162 | .059 | | |
| | KO5 | .207 | .707 | .154 | .149 | .101 | | |
| | KO6 | .234 | .705 | .087 | .207 | .168 | | |
| | KO7 | .289 | .651 | .004 | .168 | .224 | | |
|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 RD1 | .707 | .211 | -.074 | .059 | .122 | 0.918 | 0.931 |
| | RD2 | .751 | .171 | .047 | -.032 | -.014 | | |
| | RD3 | .647 | .142 | .150 | .007 | -.112 | | |
| | RD4 | .741 | .173 | -.036 | .199 | .128 | | |
| | RD5 | .724 | .120 | -.095 | .277 | .161 | | |
| | RD6 | .744 | .130 | -.078 | .194 | .172 | | |
| | RD7 | .711 | .185 | .017 | .081 | .076 | | |
| | RD8 | .772 | .139 | -.038 | .156 | .071 | | |
| | RD9 | .779 | .156 | -.008 | .108 | .097 | | |
| | RD10 | .675 | .147 | .087 | .083 | .044 | | |
| 제한된 진로준비 행동 | LCP1 | .124 | .109 | -.041 | .083 | .749 | 0.786 | 0.848 |
| | LCP2 | .051 | .123 | .239 | .057 | .668 | | |
| | LCP3 | .133 | -.024 | .219 | .042 | .540 | | |
| | LCP4 | .033 | .237 | .425 | .253 | .513 | | |
| | LCP5 | .020 | .174 | .437 | .245 | .502 | | |
| | LCP6 | .072 | .204 | .259 | .025 | .697 | | |
| 확장된 진로준비 행동 | ECP1 | -.017 | .145 | .728 | .066 | .169 | 0.791 | 0.865 |
| | ECP2 | -.008 | .167 | .766 | .036 | .144 | | |
| | ECP3 | .000 | .134 | .721 | .044 | .208 | | |
| | ECP4 | -.028 | .089 | .726 | -.076 | .080 | | |

지 못했다. 또한,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증에서 역시 평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집단 간 분산 동일성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검정 결과, [표 4]를 보면, 근로경험, 성별, 근로경험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유의확률을 보았을 때, 모든 통계치에서 유의하여 근로경험과 성별에 따른 진로역량 및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01). 또한, 근로경험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p<.01)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근로경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속변수는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p<.01)와 확장된 진로준비행동(p<.001)이었다[표 5]. 이 결과는 청소년의 근로경험이 일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직업을 준비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경험한 고등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라는 장원섭의 연구결과[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진로역량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4]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경험의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와 제한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집단 간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보기 위해 Bonferroni의 통계량으로 계산된 사후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 주었지만,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와 제한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합리적 의사결정

표 4. 다변량 검정 결과

| 효과 | | 값 | F | 가설자유도 | 오차자유도 | 유의확률 |
|--------------|-----------------|--------|----------|-------|-------|-------|
| 절편 | Pillai의 트레이스 | 0.927 | 8898.088 | 5 | 3489 | 0.000 |
| | Wilks의 람다 | 0.073 | 8898.088 | 5 | 3489 | 0.000 |
| | Hotelling의 트레이스 | 12.752 | 8898.088 | 5 | 3489 | 0.000 |
| | Roy의 최대근 | 12.752 | 8898.088 | 5 | 3489 | 0.000 |
| 근로경험 | Pillai의 트레이스 | 0.014 | 10.121 | 5 | 3489 | 0.000 |
| | Wilks의 람다 | 0.986 | 10.121 | 5 | 3489 | 0.000 |
| | Hotelling의 트레이스 | 0.015 | 10.121 | 5 | 3489 | 0.000 |
| | Roy의 최대근 | 0.015 | 10.121 | 5 | 3489 | 0.000 |
| 성별 | Pillai의 트레이스 | 0.014 | 4.865 | 10 | 6980 | 0.000 |
| | Wilks의 람다 | 0.986 | 4.877 | 10 | 6978 | 0.000 |
| | Hotelling의 트레이스 | 0.014 | 4.889 | 10 | 6976 | 0.000 |
| | Roy의 최대근 | 0.013 | 9.190 | 5 | 3490 | 0.000 |
| 근로경험 유형 * 성별 | Pillai의 트레이스 | 0.007 | 2.464 | 10 | 6980 | 0.006 |
| | Wilks의 람다 | 0.993 | 2.465 | 10 | 6978 | 0.006 |
| | Hotelling의 트레이스 | 0.007 | 2.465 | 10 | 6976 | 0.006 |
| | Roy의 최대근 | 0.006 | 4.084 | 5 | 3490 | 0.001 |

정도는 3.935점, 남학생은 3.743점이었으며, 제한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3.495점, 남학생이 3.209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역량수준이 높다는 연구[7][8]과 일관되고 있다. 하지만 반례역시 존재한다. Achebe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이 더 높았으며[9], 진로발달 수준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10][11]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진로역량수준에 있어 성차는

성별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요인과의 조절효과를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근로경험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경험의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와 적극적 진로준비행동 역량에 있어서만 근로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이 유의하게 근로경험이 없는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근로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를

표 5.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에 따른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제곱합(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근로경험 유형 | 자기 이해 | 3.614(2) | 1.807 | 2.367 |
| | 직업에 대한 지식 | 1.182(2) | 0.591 | 0.733 |
| |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 7.119(2) | 3.560 | 6.300** |
| | 제한된 진로준비행동 | 0.515(2) | 0.257 | 0.400 |
| |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 27.197(2) | 13.599 | 14.909*** |
| 성별 | 자기 이해 | 0.675(1) | 0.675 | 0.885 |
| | 직업에 대한 지식 | 2.491(1) | 2.491 | 3.091 |
| |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 7.586(1) | 7.586 | 13.425*** |
| | 제한된 진로준비행동 | 4.724(1) | 4.724 | 7.344** |
| |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 0.633(1) | 0.633 | 0.694 |
| 근로경험 유형 * 성별 | 자기 이해 | 4.905(2) | 2.453 | 3.213* |
| | 직업에 대한 지식 | 6.572(2) | 3.286 | 4.078* |
| |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 1.792(2) | 0.896 | 1.585 |
| | 제한된 진로준비행동 | 12.224(2) | 6.112 | 9.503*** |
| |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 5.610(2) | 2.805 | 3.075* |
| 오차 | 자기 이해 | 2666.598(3493) | 0.763 | |
| | 직업에 대한 지식 | 2814.841(3493) | 0.806 | |
| |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 1973.686(3493) | 0.565 | |
| | 제한된 진로준비행동 | 2246.690(3493) | 0.643 | |
| |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 3186.112(3493) | 0.912 | |

* p<.05, ** p<.01, *** p<.001

표 6. 집단 간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평균 차이

| 변수 | | 자기이해 | 직업에 대한 지식 | 합리적 의사결정 정도 | 제한된 진로준비행동 |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
|-------------|--------------------|-------|-----------|-------------|------------|------------|
| 성별 | 남(N=1955) | 3.605 | 3.176 | 3.743a | 3.209a | 2.256 |
| | 여(N=1544) | 3.647 | 3.203 | 3.935b | 3.495b | 2.322 |
| 근로경험 유무 | 근로경험 없음(N=2927) | 3.635 | 3.185 | 3.844a | 3.327 | 3.244a |
| | 근로경험 있음(N=572) | 3.564 | 3.201 | 3.747b | 3.380 | 3.294b |
| 부정적 근로경험 유무 | 부정적 근로경험 없음(N=300) | 3.588 | 3.241 | 3.799 | 3.381 | 2.483 |
| | 부정적 근로경험 있음(N=272) | 3.537 | 3.157 | 3.689 | 3.379 | 2.506 |
| 근로경험 세가지 유형 | 근로경험 없음(N=2927) | 3.635 | 3.185 | 3.844b | 3.327 | 2.244a |
| | 부정적 근로경험 없음(N=300) | 3.588 | 3.241 | 3.799b | 3.381 | 2.483b |
| | 부정적 근로경험 있음(N=272) | 3.537 | 3.157 | 3.689a | 3.379 | 2.506b |

a(b); a와 b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보면(N=572), 다섯 가지 역량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근로경험을 가진 학생이 부정적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여 주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근로경험여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전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 차이를 연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영역인 일에 대한 태도와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에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29]. 또한, 지방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록의 연구에서도 근로경험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 다만 직장체험이나 진로탐색활동은 진로준비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경험 여부보다는 일의 속성과 진로와의 연관성이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31]. 근로경험은 성별과의 조절효과를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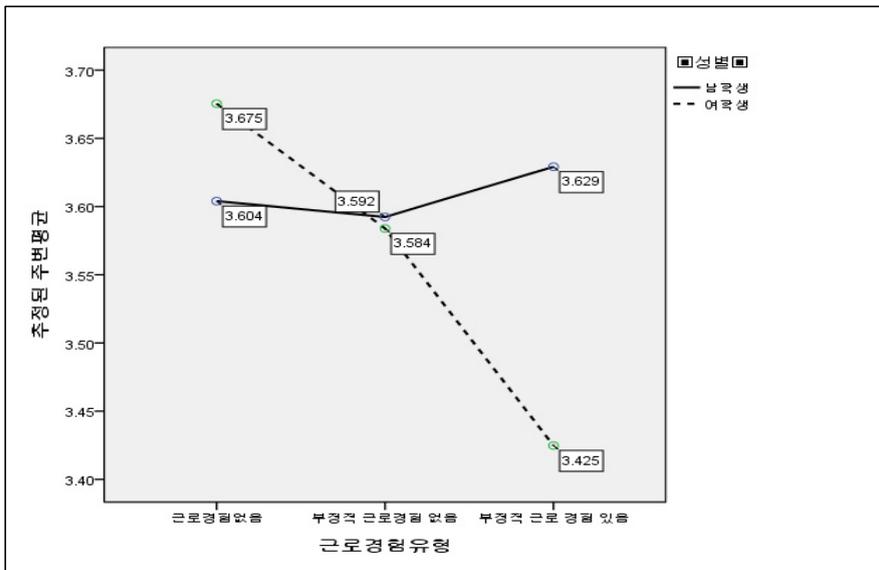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이해에 대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2. 근로경험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결과, 다섯 가지 영역 중 네 개 영역(자기 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제한된 진로준비 행동과 확장된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다(그림 1-그림 4).

먼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는 여학생(3.675점)이 남학생(3.604점)보다 자기 이해 역량이 높았으나,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은 여섯 집단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기 이해정도를 보여 주었다(3.425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근로경험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들에게는 부정적 근로경험 여부를 떠나 근로경험 자체가 자기이해 역량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여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오히려 자기이해 역량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에 대한 지식 역시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여학생(3.221점)이 남학생(3.157점)보다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훨씬 높은 역

량 정도를 나타냈다. 여섯 집단 가운데에서 근로경험이 있되 부정적 근로경험이 없는 남학생(3.299점)이 가장 높은 직업 지식을 보여 주었으며, 부정적인 근로경험은 있는 여학생(3.041점)이 가장 낮은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32][33]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부정적 근로경험의 부적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이해 역량과 직업에 대한 지식 역량 모두 여학생들의 경우 근로경험, 부정적 근로경험 없음, 부정적 근로경험 있음 순으로 역량점수를 보였다.

제한된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근로경험과 무관하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만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현저하게 컸지만(3.517 vs. 3.179),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로경험이 없는 남학생(3.179점)이 제한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전반적으로 남학생에게 있어 여학생보다 근로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있어서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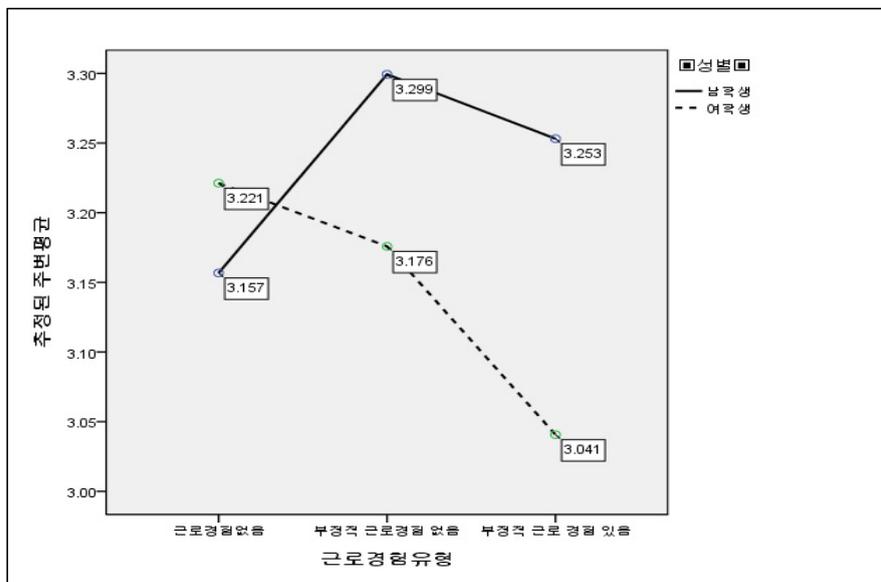


그림 2. 직업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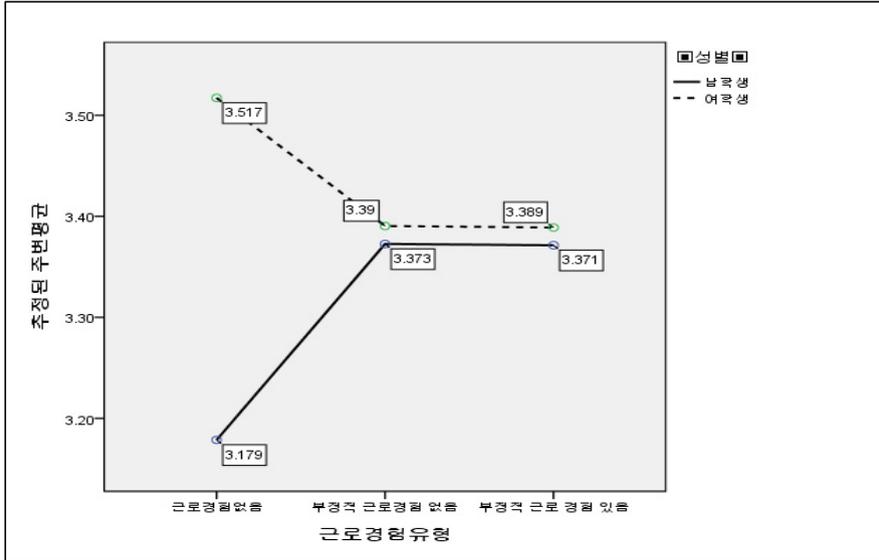


그림 3. 제한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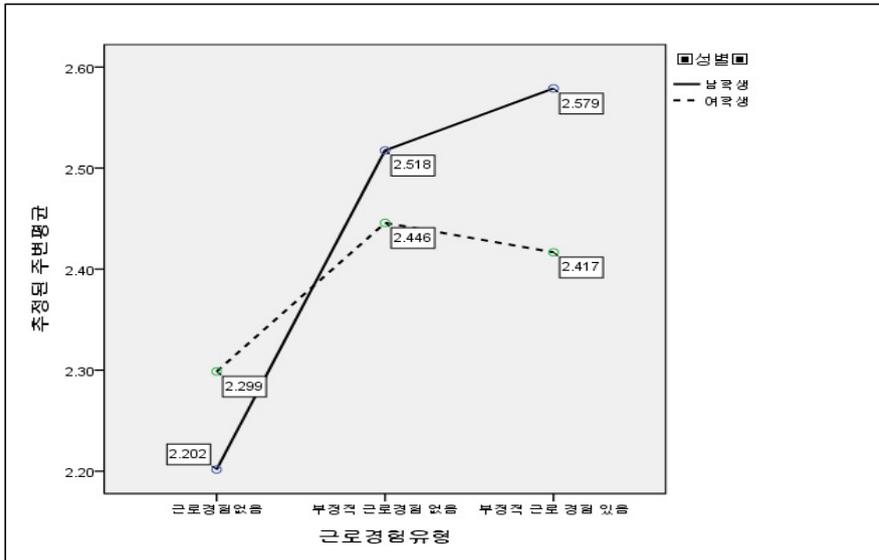


그림 4. 확장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다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근로경험이 없는 남학생(2.202점)이 가장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부정적 근로경험이 있는 남학생(2.579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경우, 근로경험이 있되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없는 여학생(2.448점)이 더 높은 확장된 진로준비행동 수

준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4]. 다섯 개의 요인 중 확장된 진로준비행동이 근로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로경험이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 경험의 효과가 남학생들에게는 긍정적 학습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지만, 여학생들에게는 부정적

학습효과로서 작용하는 것을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고교생들의 근로경험 유형에 따라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교생 근로가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고교생들에게 있어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고등학생의 근로경험이 항상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부정적 근로경험은 진로역량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기 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은 모두 부정적 근로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진로역량 수준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간제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청소년 시간제 근로를 위한 건전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이 진로개발과 진로준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때,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직장, 학교,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부정적 근로경험을 가진 학생이 근로경험 자체가 없는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때로는 부정적 근로경험이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대우와 같은 경험이 학습효과가 되어 진로준비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남학생들의 확장된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도움되는 것으로 볼 때, 남학생들에게 진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경험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정적 근로경험의 역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외한 네 가지 영역에서 근로경험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근로경험의 효과가 다르게 작용함을 보여 준 결과이다. 여학생에게 있어 근로경험 자체보다는 부정적 근로경험이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 근로경험조차도 진로역량과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특별히 아르바이트 계약과 근로 내용 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과 부정적인 근로경험이 예측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근로경험이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시간제 취업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제의 확립되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로부터의 결과는 고교생들의 근로가 진로준비와 진로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책을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진학 및 취업을 위해 진로를 계획하는 고교 재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경험의 유형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여 그 진로역량과 진로준비에의 영향을 보고자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근로경험이 본인의 장래 희망과 적성에 적합한지, 미래의 직업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청소년 근로경험의 지속성과 안정성 여부와 같은 특성도 근로경험의 진로준비에의 효과를 논의할 때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장원섭,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교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 [2] J. T. Mortimer and M. D. Finch, "The Effect of Past-Time Work on Self Concept and Achievement," In K. Borman and J. Reisman (Eds.), *Becoming a Worker*, pp.66-89, Norwood, NJ: Ablex, 1986.
- [3] R. V. Carr, J. D. Wright, and C. J. Brody,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Vol.69, No.1, pp.66-81, 1996.
-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IV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연구보고 09-R12*, 2009.
- [5] 유진이,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2권, 제5호, pp.73-112, 2010.
- [6] B. W. Westbrook, "Career Maturity: The Concept," In W. B. Walsh and S. B.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제1권, pp.263-303, NJ: Lawrence Erlbaum, 1984.
- [7] D. Luzzo,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4, No.2, pp.319-325, 1995.
- [8] S. King, "Sex Differences in a Causal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68, No.2, pp.208-215, 1989.
- [9] C. C. Achebe,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States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0, No.2, pp.153-161, 1982.
- [10] M. B. Watson and J. A. van Aarde, "Attitudinal career maturity of South African Colored High School Pupi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9, No.1, pp.7-16, 1986.
- [11] K. H. Lee,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and United States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8, No.1, pp.43-57, 2001.
- [12]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 [13] 김종성, 이병훈,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pp.33-59, 2010.
- [14]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 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연구*,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007.
- [15] V. B. Skorikov,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0, No.1, pp.8-24, 2007.
- [16] 박가열,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e-고용이슈*, 제23호, pp.1-23, 2008.
- [17] 안창규, 박성미,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상담모형", *한국진로상담학회지*, 제4권, 제1호, pp.21-51, 1999.
- [18] 박정희, 김홍석,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125-144, 2009.
- [19]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20] 허정철,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504-513, 2010.
- [21] 한혜경,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153-180, 2000.
- [22] 김기현,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7권, 제6호, pp.115-144, 2003.
- [23] 김예성, 김선숙,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 및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탐색",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139-154, 2009.

- [24] J. T. Mortimer, M. D. Finch, and M. J. Shanahan,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2, No.1, pp.25-57, 1992.
- [25] D. M. Hansen and P. A. Jarvis, "Adolescence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Youth & Society*, Vol.31, No.4, pp.417-436, 2000.
- [26] 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I): 고등학교단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 [27]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28] 이학식, 임지훈, *SPSS 18.0 매뉴얼*, 집현재, 2011.
- [29] 정윤경,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5.
- [30] 이상록,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준비의 영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1호, pp.5-39, 2004.
- [31]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 [32] 신희경, 김우영,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pp.47-83, 2005.
- [33] 박효희, 성태제,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9권, 제1호, pp.117-142, 2008.

저 자 소 개

김 소 라(Sora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미국 위스컨신 주립대학(소비자학 석사)
- 2004년 12월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소비자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광고규제, 정보화정책, 청소년정책